

특별기고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도시철도 타고 '기회도시역'으로 가자

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에, 순환선인 2호선이 더해지면 광주 곳곳이 도시철도를 따라 연결되는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자전거, 1인 교통수단 등이 어우러지며 광주 곳곳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 마치 인체의 혈맥과도 같이, 도시철도가 한 중심에서 도시의 흐름을 지켜내고 각 지선이 모세혈관처럼 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첨단지구에 사는 대학생은 조선대까지 1시간 반에 육박하던 등교시간을 30분으로 줄이게 되고, 일곡지구의 직장인은 상무지구의 사무실까지 길 막힘 없이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다. 도로 혼잡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시간을 아끼게 되면서, 광주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특히 우리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현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 이번 겨울 우리 지역을 덮친 긴 가뭄과 더불어, 최근 나타나는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 등 각종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7.9%로 전국 평균치의 3배를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대중교통만으로도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격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대중교통 이용은 녹색광주를 구현해 맑고 푸른 내일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중요한 의무인 것이다.

광주도시철도의 효용성은 그 편익을 체감해 온 이용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폭설이 심하게 내린 지난 연말, 많은 시민들이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며 단절 없이 안정된 일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미세먼지 등 악화된 외부 환경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최적의 공기 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뿐인가?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끝없는 광주를 뒷받침하는 일상 속의 행복 콘텐츠가 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문화 인프라인 것이다.

‘문화·풀잼’ 도시 조성 뒷받침

이제 광주도시철도를 따라 새로운 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어려움을 딛고 정상궤도를 찾은 도시철도 2호선을 따라 시민들의 행복도 새롭게 도약할 터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마음껏 걷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광주의 중심에 뜨거운 심장처럼 광주도시철도가 달리게 되리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첫 걸음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다. 도시철도를 중심에 두고 여타 교통수단이 긴밀하게 연계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공사 관련 시민 불편에 대해 정중히 양해를 부탁드린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 ‘기회도시역’을 향해 광주도시철도가 힘껏 달려가겠다.

기대가 머물러 기회를 찾아가는 곳. 바로 광주도시철도역이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제와 다른 내일이 마음마다 가득 차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밝은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승객들을 마주하며 20.5km의 이 길 속에 얼마나 많은 꿈과 기회가 숨 쉬고 있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대중교통 대변혁 ‘순환 2호선’

이제 우리 광주에 더 큰 기회가 흐르게 된다.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며, 건설이 순조롭게 정상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현재 공사 중인 1단계는 2026년 개통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2단계 구간도 공사에 착수해 2029년에는 순환선 전체를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조만간 3단계 공사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새로운 미래

기고



민덕희

여수시의원

지역정체성 확립이 지역 경쟁력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역학이 과거에 향토역사 위주의 역사, 연구를 뛰어넘어 지역이 당면한 현안 해결, 지역민 삶 속에서의 환경개선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실용적인 학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발전 동력 및 공동체를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례안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진흥 계획 수립 시행,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여수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나온 여수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 인문환경 연구를 통해 여수만의 비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다른 지역과 대별되는 여수만의 경쟁력을 분석해, 그 가치를 현재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서 오는 성과와 혜택이

공공재가 돼 여수시민에게 확산되고 공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연구인력의 확충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생동감 있는 지역학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문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과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문화가 가진 좋은 가치를 발전시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여수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수시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 지속적이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학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춘 연구주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지역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의 활력과 지역민의 공동체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확산이 사라져가는 공동체성을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

악성사기 척결, 안전 전남 지름길

이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정부와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주거부정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전남경찰은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성사기 척결에 집중하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또한 악성 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평소에도 확인을 철저히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경찰에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

/김현오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소경

특지방장

경찰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인 7대 악성사기(▲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 사기)를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악성사기인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자녀·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교부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면 곧바로 가까이 있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코난’(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탐지 어플)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악성사기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선순위 채권 확인 등 각종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

사설

‘관광벨트’ 경쟁...전남·경남권 박차를

바야흐로 관광벨트 구축 시대라고 할 만큼 지자체별 관련 전략이 잇따르고 있다. 서해안권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지역이 인천·경기·충남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조가 좋은 ‘선셋 드라이브’ 코스를 비롯한 해양레저 관광, 해저터널 등이 어우러져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잡아보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동해안 쪽 관광은 익히 알려진 바, 이제는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이 각각 관광벨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이 포함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 관광은 천혜의 섬과 갯벌 등으로 이뤄져 세계적 관광 명소 발돋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남과 경남, 부산 등 3개 광역지자체장은 이 같은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해안남동권으로 불리는 전남과 경남지역 9개 시·군도 활발한 협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공동보조 또는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보에 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K관광 휴양벨트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남해안 권역을 문화예술, 한국형 웰니스관광,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관광벨트로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보인 것이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지자체 간의 상생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의 질병으로 불리는 수도권 쏠림을 막을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2의 수도권을 꿈꾸는 남해안 지자체 협력 사업은 지역민은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새해에는 국토 남부지역의 성장 동력이 활성화하고 영·호남의 화합의 장이 확대되길 바란다.

여순특별법 조속한 개정 필요하다

이달 20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등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고기간이 만료된다. 지역민들의 한을 풀기에는 기한이 너무 짧다.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의 20년 만에 시행된 현행 특별법은 제정 당시 여러 사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화해, 상생, 그리고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원을 이루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10월 6일, 정부는 여순사건 발발 74년 만에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순사건법은 생존한 희생자인 의료 및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한정하는 모순이 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은 무

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희생자 결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다. 진상규명 기간 또한 매우 짧아 껌대기뿐인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모순.

이에 따라 현행 여순사건법과 모순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돼 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 동부권 지역민, 특히 여수시의회는 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이 생존 때에 여순사건이 완전히 해결돼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특별법 조속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조사 인원 확충과 진상규명 조사 및 신고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최고의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

기고



김행모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화기는 층별·세대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주방 등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도 간편하지만 화재 초기 피해 저감 효과는 굉장히 크다.

번창과 풍요의 상징 토끼 해인 계묘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을지 모르지만 같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도 코로나19로 인해 따듯하고 넉넉한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장바구니에 산물을 담고 계산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조금 특별한 선물로 안부 인사를 전해 보는 건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단독·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사실을 감지

특히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음으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을 가진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방시설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 몸과 마음이 따뜻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설에는 효도의 첫 걸음! 고향 집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즉, 안전(安)을 선물하고 안심(安心)을 담아오는 것은 어떨까?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전을 나누는 즐겁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